

▶ 전주대사습놀이 성료...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에 방윤수씨

“예선 마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지만, 우승까지 하게 돼 기쁘다”

“실수 없이 예선을 마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게 생각했는데, 열띤경쟁에 우승까지 하게 돼 실감이 잘 안 나지만 감사합니다”

11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막을 내린 제43회 전국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명창부 장원(상금 5000만원)을 차지한 방윤수(45, 광주광역시)씨는 “직장생활과 병행하며 소리를 하다 보니, 소리에만 오롯이 전념하기가 여의치 않았을 뿐더러 중간에 소리꾼으로서 잠시 쉬어 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주신 스승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판소리 '흥보가' 중 '흥보 매 맞는 대목'을 열창한 방 씨는 2년 전부터 마음을 다잡고 다시 소리공부에 매진하여 올해 상을 거머쥐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소리를 시작한 방 씨는 “이번 대회에서 소리의 기교를 완성해 선보이는 걸 우선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창순·강도근·전인삼 명창을 사사했다. 현재 전남대 국악과 박사 과정 중에 있으며, 광주시립창극단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전주시와 전주대사습놀이조직위가 진행한 올해 경연에는 판소리명창부 2명을 비롯해 농악부 3팀, 기악부 3명, 무용부 3명, 민요부 3명, 가야금병창부 3명 등 6개 부문에 총 17팀·155명이 참가했다.

각 부문별 장원에게는 국회의장상(명고수부)과 국무총리상(농악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장생활과 병행하다보니 소리에만 전념하기 어려워 동기부여 해주신 스승 덕분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와”

전국대회 차상에 김혜진씨
가야금 병창부 장원에 송란씨
기악부 장원에 여상근씨 등 입상
학생대회 판소리부 장원에 박지수양

11일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차지한 방윤수씨가 깃발을 들어올리고 있다.

장관상(기악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무용부), 국방부장관상(공도부), 전북도지사상(가야금 병창부), 전주시장상(판소리 일반부), 공동조직위원장상(민요부·시조부)이 각각 수여되는 등 부분별 시상식이 이뤄졌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43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입상자
△판소리 명창부(2)=장원 방윤수(45, 광주

광역시), 차상 김혜진(24, 전북전주)
△가야금 병창부(3)=장원 송란(30, 광주), 차상 김지애(29, 서울), 차하 장혜윤(33, 전남 진도)

△기악부(23)=장원 여상근(26, 서울), 차상 김영산(25, 대구), 차하 박병재(22, 경기 포천), 차하 최용석(22, 대전), 장려 김호빈(29, 전북 전주)

△무용부(21)=장원 전보현(22, 서울), 차상 김민정(35, 경기 광명), 차하 최예지(21, 전남 화순), 차하 염상현(30, 서울), 장려 이지현(44, 전북 완주)

△민요부(8)=장원 금빛여울(25, 서울), 차상 허영현(52, 경기 광명), 차하 김영안(60, 경기 남양주), 차하 안선녀(54, 경기 성남), 장려 이민식(55, 경기 성남)

△농악부(3팀)=장원 세한대학교 전통연희학교(임성민 외 5명), 차상 화성두레농악보존회(안병성 외 5명), 차하 춘천농악보존회(고명기 외 3명)

△판소리 일반부(9)=장원 정운형(20, 서울), 차상 김유빈(22, 전북 완주), 차하 조정규(21, 전북 전주), 차하 지명인(21, 서울), 장려 정승준(25, 서울)

△명고수부(6)=장원 추지훈(24, 전남 해남), 차상 송대의(21, 전남 화순), 차하 김한샘(24, 서울), 차하 소재성(51, 전북 전주), 장려 김민서(38, 서울)

△시조부(27)=장원 이현택(62, 서울), 차상 박재우(62, 경북 구미), 차하 김인순(60, 전북

전주), 차하 이동명(51, 대구), 장려 이현배(37, 충남 당진)

△공도부(259)=장원 오양환(경남 창녕), 차상 서정일(세종)·고철석(광주), 차하 이재은(충북 단양)·김홍구(경북 경주)·홍영(광주), 차하 장규혁(충남 예산)·강병직(경남 합천)·원운섭(강원 횡성)·강병권(전북 김제), 장려 백도석(전북)·김호실(경남 하동)·이대호(경북 경주)·임현중(경남 의령)·장현철(경기 고양)

▲제35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대회 입상자

△판소리부(7)=장원 박지수(서울국립전통예술고), 차상 미채영(한국전통문화고), 차하 이수현(국립전통예술고), 차하 김현영(국립전통예술고), 장려 조예원(한국전통문화고)

△가야금 병창부(16)=장원 권지영(국립전통예술고), 차상 김준현(광주예술고), 차하 조영화(국립전통예술고), 차하 이가영(남원국악예술고), 장려 박서현(국립전통예술고)

△기악부(11)=장원 윤진우(국립전통예술고), 차상 유수빈(국립국악고), 차하 박경민(국립국악고), 차하 김지희(국립국악고), 장려 이건희(국립전통예술고)

△시조부(7)=장원 이지민(국립전통예술고), 차상 양하진(전주덕진초), 차하 장선호(전주예고), 차하 김수현(전주전리초), 장려 박여은(화성 능동초) /정해은 기자

디지털독립영화관 이번주 개봉작 공개

‘시인의 사랑’·‘사월의 끝’·‘여배우는 오늘도’ 등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제주도의 시인이 겪는 특별한 만남 ‘시인의 사랑’, 세 여자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사월의 끝’, 문소리 연출·각본·출연의 ‘여배우는 오늘도’를 9월 둘째 주 개봉작으로 오는 14일 개봉·상영한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그래프 ‘시인의 사랑’은 지난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프로젝트마켓에서 극영화 피칭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기획단계부터 주목 받은 작품.

아름다운 시 세계와 파격한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시인이 한 소년을 만나면서 새로운 감정에 눈 뜨는 과정을 담았다.

영화는 제주 출신의 시인이자 제1회 4·3문학상 수상자인 현택훈 작가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탕으로 현택훈 시인의 ‘내 마음의 순력도’, ‘마음의 꽃자일’, 김소연 시인의 ‘그래서’ 등 다채로운 시가 등장한다.

(사)전주영상위원회 2015 전북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사업 선정작 ‘사월의 끝’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 현진이 낡은 아파트 이사를 온



‘시인의 사랑’



‘사월의 끝’



‘여배우는 오늘도’

후 동네에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그를 둘러싼 세 여자의 얽히고설린 비밀을 담아낸 작품이다.

지역출신 김광복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부문에서 배우 박지수가 여우주연상을 수상 화제를 모았다. 또한 연기와 배우 장소연이 박주무관 역을 맡았으며, 총무로의 신예 배우 이빛나가 주희 역을 맡아 열연했다.

연기와 배우 문소리가 감독·각본·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은 ‘여배우는 오늘도’는 문소리의 단편 연출작 여배우, 여배우는 오늘도, 최고의 감독을 모아 장편으로 완성했다.

여성으로서의 삶과 직업으로서의 배우, 영화에 대한 깊은 사랑을 스크린 밖 일상을 통해 경쾌하고 유쾌하게 담은 작품이다. 배우 문소리의 실제 고민과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관객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국 국악대전 16일 개막

전북시군농악경연대회도

전통국악의 계승 발전을 위한 제35회 전국국악대전 및 제36회 전북시군농악경연대회가 오는 16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사)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지회장 김학곤)가 주최·주관하는 ‘제35회 전국국악대전’은 전통국악의 계승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국악대회로, 올해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이날 대회는 판소리, 무용, 기악, 시조 4개의 경연종목, 일반부와 신인부, 고등부, 초·중·등부로 나뉘어 전국에서 모인 국악인재들의 열띤 기량 대결이 펼쳐진다.

또, 일반부 기악 대상자에게는 국회의장상과 상금200만원이 수여되며, 판소리와 무용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2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와 함께 16일에는 전통농악의 계승발전과 농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제36회 전북시군농악경연대회 가 완주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정해은 기자



창작 뮤지컬 ‘루나틱’, 15일 익산예술의전당서 이틀간

재즈 밴드가 어우러진 라이브 창작 뮤지컬 ‘루나틱’이 15~16일 양일간 두 차례에 걸쳐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개그맨 백재현이 연출·출연하는 창작뮤지컬 ‘루나틱’은 세 명의 환자를 둘러싼 각각의 에피소드로 이뤄졌다.

극은 사랑 때문에 미친 첫 번째 환자 나제비와 돈 때문에 돌아버린 두 번째 환자 고독해, 그리고 세상의 억울함에 미친 세 번째 환자 정상인 등을 둘러싸고 이들을 미치게 하는 미친 세상을 풍자하고 있다.

공연은 15일 오후 7시30분과 16일 오후 5시에 각각 열린다. 관람료는 S석 2만원, A석 1만원. 8세 이상 입장자(미취학 아동 입장불가). /정해은 기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